

다대포진 객사와 동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aeksa and Dongheon of Dadaepo-jin

서 치 상*

Seo, Chi-Sang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is paper aims at the examination on the fallacy of the name of 'Dadaepo-gaeksa'.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so called 'Dadaepo-gaeksa' was one of the official buildings of Dadaejin, the naval forces in the late period of Josun dynasty. The building was moved to Molundae near the original site in 1970. And two years later, it was designated as a cultural asset. However it's real name is 'Dadaejin-dongheon', because Dadae-jin gaeksa was demolished about the time of the foundation of Dadaepo-elementary school. Otherwise, Dadae-jin donheon was used as a school building from 1904 to 1970. Futhermore,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existing building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gaeksa's in the period of Josun dynasty. Therefore, the name of Dadaepo-gaeksa needs to change into Dadaejin-gaeksa and to restore as its original style.

주제어 : 다대포진, 객사, 동헌, 몰운대, 문화재명칭

Keywords: Dadaepo-jin, gaeksa, dongheon, Molundae, name of cultural heritage

1. 머리말

현재 '다대포 객사'로 불리는 건물은 조선 후기 경상 좌수영 산하 다대진(多大鎭)의 관아건물 중 하나이다. 원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의 다대진성 내에 있었으나 1970년 이곳에서 2km 거리의 몰운대 숲속으로 이전·복원되면서 이 명칭으로 부산직할시 유형문화재 제3호(1972. 6. 27)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붙여진 명칭이나 복원형식은 오류이다. 무엇보다 객사는 1904년 다대진성 내에 다대포사립실용학교가 설립될 무렵 철거된 상태였으므로 이전·복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나마 동헌과 부속행랑채만 남아 교사로 사용되다가 1970년 운동장 정지공사 때 동헌만 몰운대로 옮겨졌다. 이 때 동헌을 객사로 오인해서 '다대포 객사'라는 문화재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한번 부여된 문화재 명칭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통용된다. 문화재청 누리집을 비롯한 모든 온·오프라인 정보매체들이 객사라는 전제 하에 해설을

덧붙인다. 국왕의 전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올리며 사신의 숙소로도 사용된 이 지역 유일의 조선시대 객사건물이라는 식이다. 더 나아가서 현존 건물이 객사의 건축형식과 판이함에도 정청만 남고 좌우 익실이 없어졌다는 식의 설명도 이어진다.¹⁾ 단순히 문화재 명칭의 오류에 그치지 않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낳게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존 건물이 객사가 아니라 동헌임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문화재의 명칭 변경과 함께 올바른 건축형식으로서의 복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후기 다대진 관련 문헌과 고지도, 교회화등을 바탕으로 다대진성 내에 있던 객사와 동헌 등 관아건물의 규모와 위치, 건축형식 등을 검토한다.

둘째, 1904년의 다대포사립실용학교 개교부터 1970년 운동장 정지공사 때까지의 학교 시설에 대한 기록과 근대기 사진자료, 1970년 이전 복원공사 때의 건축도면 등

1) 부산직할시, 『부산의 문화재』, 1993, 122쪽, 문화재 지정 후 작성된 해설로, 이후 여러 정보매체가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 csseo@pusan.ac.kr

을 바탕으로 현존 건물이 동헌임을 증명한다.

셋째, 조선 후기 경상좌수영 산하 수군진이나 인근 영읍진의 객사들과 비교함으로써 현존 건물이 객사의 건축형식과 다름을 증명한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관련 자료는 비교적 많다. 먼저 문헌기록은 『영남진지』 <다대진지(多大鎭誌)>(1895)와 1895년 다대진 혁파 직전에 후임첨사가 작성한 <다대진각방중기책(多大鎭各房重記冊)>(1893, 이하 중기책), 그리고 혁파 직후인 1899년 내장원이 작성한 <경상남도동래부다대진목공해간수증물공산추주수급장내동리호수성책(慶尙南道東萊府多大鎭牧公廨間數汁物公山楸株數及場內洞里戶數成冊)>(1899, 이하 호수성책)이 대표적이다. 두 문헌에서 객사와 동헌의 칸수와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러 건의 고지도와 고회화 중에서 동래부 화원 이시눌의 <임진전란도(壬辰戰亂圖)>(1834)와 변박의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1872년 군현지도> 중의 <다대진지도(多大鎭地圖)> 등에서는 객사와 동헌의 위치, 칸수, 건축형식 및 인근 영읍진 객사들과 건축형식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개교 과정에 관한 기록인 <연혁지>(연대 및 작자 미상)와 다대초등학교충동문회의 『다대백년사』(2004)에서는 관아건물의 교사 전용과정 및 1930~1960년대의 학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이래의 학교건물 및 전경사진, 1970년 이건공사 때의 건축도면도 객사가 아니라 동헌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대포 객사’의 명칭 오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대진 동헌’으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올바른 건축형식으로의 복원을 위한 근거가 제시되는 한편 유사 사례의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2. 조선 후기 다대진의 객사와 동헌

2.1. 다대진의 연혁

낙동강 동쪽 하구에 위치한 다대포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여서 예로부터 왜구의 침탈이 심했다. 이에 따라 조선 태종 때 종4품의 수군만호가 주재하는 진이 설치되고,²⁾ 성종 21년(1490)에는 진성이 축조되었다.³⁾

다대진은 중종 5년(1510) 4월 인근의 제포(薺浦) 등

에서 발생한 삼포왜란 때 함락되었다. 이 사건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중종 29년(1534)에는 수군첨사 주재의 거진(巨鎭)인 부산포를 이곳으로 이전할 것이 논의되지만 취소되었다.⁴⁾ 그 대신 종4품 만호를 종3품 첨사로 올리고 군사도 크게 증강시켰다. 특히 첨사는 동반을 오래 지낸 물망이 있는 자를 차견하는⁵⁾ 등 거진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했다.

다대진은 선조 25년(1592) 4월 14~15일 왜군과의 첫 전투 때 함락되었다. 전란 직후 복구된 이래 큰 변화 없이 동남해안을 수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다가 고종 20년(1883) 4월 인근의 절영도에 수군진이 새로 설치되면서 혁파되지만⁶⁾ 2년 뒤에 복설되었다. 성곽과 첨사가 완전하다는 것이 그 이유로,⁷⁾ <중기책> 등에서 그 무렵의 객사와 동헌 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95년의 갑오개혁으로 최종 혁파되면서 동헌 등 일부 건물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2.2. 문헌에 기록된 객사와 동헌

조선후기 다대진의 관아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문헌에서 확인된다. 『영남진지』 <다대진지>(1895) 해우조에 객사는 변방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회원관(懷遠館)이라 했고, 진헌, 즉 동헌은 범에 비유하여 용맹하고 굳건하다는 뜻으로 수호각(睡虎閣)이라 했다. 각기 명칭에 따른 몇 편의 제영을 실었지만 조영연혁이나 위치, 칸수 등은 적지 않았다.⁸⁾

반면에 <중기책>(1893)과 <호수성책>(1899)은 혁파 전후의 관아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중기책>은 혁파 직전 전임 첨사 민건호(1891.4~1893. 4 재임)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후임 첨사 박기중(1894. 4~1895. 2 재임)이 작성한 문헌이다. 전체 66개 건물, 278칸에 걸쳐 건물별 칸수와 주요 건물을 중수한 첨사 이름이 적혀 있다. 또 <호수성책>은 혁파 직후 왕실재산 관리를 하던 내장원이 작성한 문헌이다. 다소 적은 58개 건물, 226칸에 걸쳐 칸수가 적혀 있다.

표 1은 두 문헌에 적힌 객사와 동헌 일곽의 건물 칸수와 중수한 첨사를 정리한 것이다. 객사 일곽은 두 문헌이 모두 3동이지만 <호수성책>에는 혈소청 대신 외사문이란 건물이 보인다. 동헌 일곽은 <중기책>에 8동

4) 『중종실록』 중종 29년(1534) 9월 29일조

5) 『중종실록』 중종 39년(1544) 9월 28일조

6) 『고종실록』 고종 20년(1883) 4월 19일조

7) 『고종실록』 고종 20년(1885) 12월 19일조

8) 『영남진지』(1895) <다대진지> 해우조

2) 『태종실록』 태종 7년(1407) 7월 27일조

3) 『성종실록』 성종 21년(1490) 11월 29일조, 높이 13척, 둘레 1,806척의 성곽을 쌓았다고 했다.

인 반면, <호수성책>에는 6동이 적혀 있다. 혁파 3년 후인 1899년 무렵에는 일부 건물이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객사 일곽의 부속건물은 두 문이 남고, 동헌 일곽은 마구와 창사만 남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다대진 객사와 동헌 일곽의 건물 내역 () : 칸수

구분	중기책(1893)	호수성책(1899)
객사 일곽	객사(15) 내삼문(3) : 等內 신건 혈소청(3) : 等內 개건	객사(15) 내사문(3) 외사문(6)
동헌 일곽	동헌(13) : 后洞李等內 중수 동중문(1) 서중문(1) 마구(3) 삼문(3) : 等內 중수 혈소청(3) : 仁峴李等內 중수 유포고(3) : 仁峴李等內 중수 대동고(9) : 仁峴李等內 중수	동헌(13) 동문(1) 서문(1) 마구(3) 삼문(3) 창사(3)

* 等內 : 閔建鎬 침사(1891.4~1893.4 재임), 后洞李等內 : 미상
仁峴李等內 : 李容益 침사(1871.7~1873.11 재임)

두 문건에서 객사와 동헌은 4방 1칸을 기준으로 15칸과 13칸씩이라 했다. 정면 기준으로는 7칸과 5칸씩으로 추정되는데, 측면이 최소 2칸일 경우 각기 1칸과 3칸이 차이난다. 다만 온돌방을 간벽으로 나누거나 뒤편으로 반 칸 돌출시킨 책방(冊房)이나 지장고(知藏庫), 또는 퇴칸을 칸수에 넣기도 한다. 물론 현존 건물은 골조만 남아서 간벽 등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퇴를 형성하는 퇴주 4본이 남아 있다. 퇴칸을 산입했다면 5×2칸이라도 전체 13칸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객사는 <임진전란도>에 정면 7칸으로 묘사되므로 측면 2칸이면 전체 14칸 이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문건에 적힌 13칸의 동헌은 객사의 최소 칸수인 14칸에 1칸 모자란다. 기둥만 있는 현존 건물은 정면 5칸으로 <임진전란도>의 정면 7칸에 2칸 모자란다. 현존 건물이 객사일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다.

한편 1904년부터 동헌 일곽의 건물로 1, 2학년 교사로 사용된 부속행랑채는 <호수성책>에 적힌 창사였을 것이다. 함께 적힌 마구는 동헌 동쪽에 위치하는데다 일찍이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⁹⁾

2.3. 고지도와 고회화에 묘사된 객사와 동헌

조선 후기 다대진을 그린 고지도와 고회화는 많지만 객사와 동헌의 위치, 건축형식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임진전란도>(1834)와 <1872년 군현지도>이다. 그림 1

의 <임진전란도>는 1834년 동래부 화원 이시눌이 임진왜란 때의 다대진성과 부산진성 전투상황을 회상해서 동도이시법(同圖異時法)으로 한 폭에 그



그림 1. <임진전란도> 중의 다대진성 전투장면(규장각)

린 것이다. 예전의 모습이지만 성곽이나 관아건물은 제작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그렸을 것이므로 혁파 직후까지 존속했던 객사와 동헌의 면모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객사는 성내 후면 중앙에 솟을삼문식의 외대문과 직사각형 담장 내에 정면 7칸의 팔작집으로 묘사된다. 가운데 3칸은 좌, 우의 각기 2칸보다 더 높다. 조선시대 객사건물의 통식적인 건축형식으로 가운데 맞배지붕 부분은 정청에, 좌, 우의 외팔작지붕 부분은 동·서 익헌에 해당할 것이다.

특히 객사 앞의 동헌 일곽에는 팔작집 1채와 그 앞 좌, 우에 팔작집 2채가 마주보는 식으로 그려져 있다. 정면 5칸의 팔작집은 동헌이고, 그 앞으로 정면 3칸의 두 채는 부속행랑채에 해당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위치나 칸수, 건축형식이 일제강점기 이래의 사진이나 <학교추정도>에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림 2의 <1872년 군현지도> 중의 <다대진지도>에는 다대진의 성곽과 관아시설, 도로 등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객사는 방형 위곽 북쪽의 중앙에 위치하고, 동헌은 객사의 서북쪽에 위치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다.¹⁰⁾ 객사는 기둥을 그리지 않았지만 가운데 정청은 크고 높은 몸채 위에 맞배지붕을 그렸고, 좌, 우 익헌은 작고 낮은 몸채 위에 외팔작지붕을 그렸는데, 일반적인 객사 건축형식과 같다. 반면에 아사(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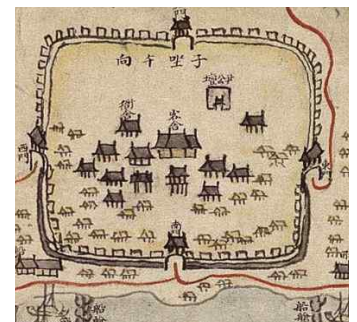


그림 2. 1872년 군현지도 중의 다대진지도(규장각)

10) <1872년 군현지도>는 대원군집권기에 통치체제 확립을 위해 각 지방의 현황 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관아건물은 객사를 중심으로 그려서 여타 건물의 위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같은 화원이 그린 <동래부지도>에 뒤쪽의 객사 식파루가 앞쪽의 동헌 망미루 앞에 그려지듯이 <다대진도>도 객사를 중심으로 표현하면서 동헌을 뒤쪽에 상당히 작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9) 다대포초등학교총동창회, 『다대백년사』, 2004, 336쪽

숨)로 표기된 동헌은 팔작집으로 표현하고 그 앞에 부속건물들을 그렸다. 객사와 동헌의 건축형식이 <임진전란도>(1834)에 묘사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3. 학교 설립 이래의 객사와 동헌

3.1.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설립과 <연혁지>

다대진이 혁파된 지 2년 후인 1902년 성내의 객사와 동헌 등이 있던 핵심 공간에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설립이 추진된다. 한경범(韓璟範)과 윤필호(尹弼濤)가 각기 설립자와 초대 교장이 되어 관유재산과 지역 유지들의 기부를 받아 1904년에 4년제 학교로 개교했다. 이후 1939년에 6년제의 다대포실용학교로 개편되고, 1943년에 6년제의 다대포공립국민학교로 개편되었다. 교사로 사용된 관아건물에 대해서는 당시 육필로 쓴 11장의 <연혁지>¹¹⁾에서 확인된다. 그 중의 ‘학교 위치와 교사(學校位置及校舍)’에

位置는 城隍山麓의 風景佳麗한 多大浦 中部에 定하고 校舍는 舊公廡 一棟 五間과 行廊 一棟 四間으로 以新製改名하고 運動場은 以官有地로 設定하였는데 坪數 五百十餘坪이러라.

라 하여 구 공해 1동(5칸), 행랑 1동(4칸)을 불하받아 교사로 사용하고, 관유지 510여 평을 운동장으로 쓰기로 했다고 한다. <중기책>과 <호수성책>과 대조하면 5칸의 구 공해 1동은 정면 7칸의 객사가 아니라 정면 5칸의 동헌이며, 행랑 1동은 동헌에 딸린 헐소청(창사) 3칸이다. 구 공해가 객사라면 칸수가 맞지 않고, 더구나 객사는 없어진 상태였다. 이는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大正八年八月日 旧各公廡中 船所 砲廳 武士廳 通引房 守城廳 執事廳 六廡를 以校長名義로 拂下申請하여 剩餘金七百圓을 本校에 收入하다.

라 하여 1919년까지 성내, 외의 관아건물 중에서 선소, 포청, 무사청, 통인방, 집사청 등 6동만 남아 있었고, 객사는 이미 철거되어 없어진 상태였다. 교사로 전용된 구 공해 1동(5칸)이 객사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2. 1930~1960년대의 <학교추정도>

2004년 다대포초등학교 총동창회가 펴낸 『다대백년사』에는 4년제 다대포사립실용학교 때인 1930년경, 6

년제로 개편된 1938년경, 다대포국민학교로 개편된 1960년경의 <학교추정도> 5장이 실려 있다.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렸지만 객사의 소멸 시기, 교사로 사용된 동헌과 부속행랑채, 윗, 아래운동장과 그 사이의 축대 등 시기별 학교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림 3의 <1930년경 학교추정도>는 4년제 다대포사립실용학교 때의 모습이다. 건물은 윗운동장 우측에 작은 소사집과 사택 2동이 있고, 아래운동장에 3, 4학년용의 ‘침사청’과 그 앞 좌측에 1, 2학년용 ‘부속건물’이 있다. 윗, 아래운동장 사이는 동서로 축대가 있고 가운데에 계단으로 오르내리도록 했다. 객사가 있던 윗운동장은 빈 공간으로 변했고, 축대 밑 아래운동장에 침사청으로 표기된 동헌과 그 전면 좌측으로 부속행랑채인 헐소청이 보인다. <연혁지>에 적힌 것처럼 아래운동장에 구 공해(5칸) 1동과 부속행랑채(4칸) 1동만 남아서 교사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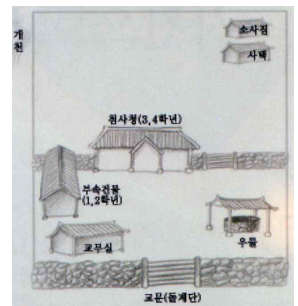


그림 3. 1930년경 학교추정도(다대백년사)

그림 4의 <1938년경 학교추정도>는 4년제 다대포사립실용학교가 6년제 다대포실용학교로 개편될 무렵의 모습이다. 객사 터인 윗운동장에 새로 5, 6학년을 수용할 소규모 건물이 들어서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건물은 당시의 사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윗운동장과 아래운동장 사이에 축대가 있고, 가운데의 계단으로 통하도록 한 것 등은 변하기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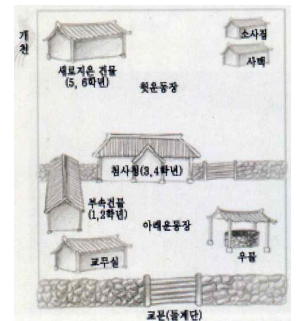


그림 4. 1938년경 학교추정도(다대백년사)

그림 5의 <1960년경 학교추정도>는 6년제 대다포국민학교로 개편된 이후 상황이다. 종전과의 차이는 객사 터인 윗운동장에 본관 겸 5, 6학년용 새 교사가 들어선 것이다. 그 무렵 학급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학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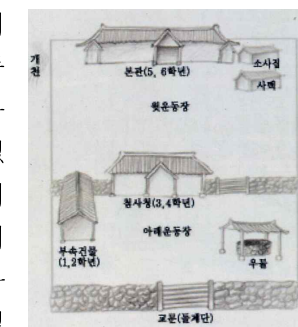


그림 5. 1960년경 학교추정도(다대백년사)

11) <연혁지>는 다대포초등학교 총동창회가 펴낸 『다대백년사』(2004)에 영인되어 실려 있다.

가 커진 때로, 건물은 당시의 사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윗운동장과 아래운동장 사이의 축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운동장의 3, 4학년용 교사로 사용되는 동헌과 1, 2학년용의 부속행랑채는 그대로이다. 그러나 1970년 두 운동장을 같은 레벨로 합치는 정지공사로 인해 동헌만 물운대로 옮기고 부속행랑채는 철거하게 된 것이다.

3.3. 근대기의 <지적원도>와 사진자료

다대진성 일원의 <지적원도>(그림 6)는 동서 방향이 긴 부정형의 성곽과 도로망, 개천, 관아 터 등을 잘 보여준다. 남문에서 이어지는 종축 도로와 동, 서문을 잇는 횡축 도로가 T자형으로 3교차하고, 그 북쪽에 객사 등 주요 관아 건물이 노단경(路端景, terminal vista)을 이루는 전형적인 성곽 내의 공간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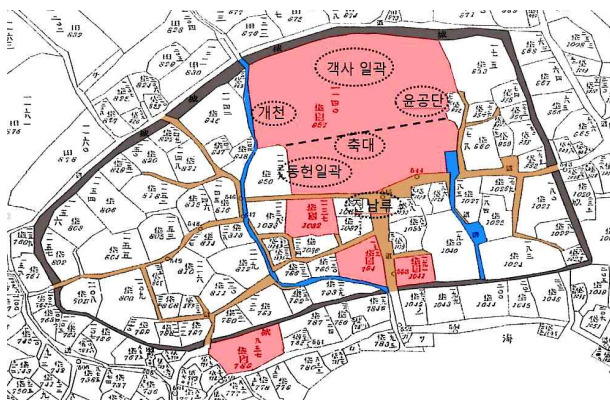


그림 6. <지적원도>(1913, 국가기록원)

<지적원도>가 제작된 1913년까지 국유지로 남아 있던 필지는 5개(1개는 성 밖)로, 가장 큰 ‘堡 1140(國)’이 다대포사립실용학교 부지이다. 중간 위치의 좌우로 약 2m 높이의 축대(점선으로 표시)가 설치되어¹²⁾ 윗 공간에 객사와 윤공단(尹公壇)¹³⁾이 있었고, 아래 공간에 동헌과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 윗, 아래운동장과 그 중간의 축대, 부지 좌측의 개천 등이 1930년부터 1960년까지의 <학교추정도>에 그려진 모습과 일치한다.

한편 일제강점기 이래의 학교모습을 찍은 몇 장의 사진은 앞서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입증해준다. 먼저 사진 1은 일제강점기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교사로 사용되던 동헌이다. 건물 앞, 뒤에 축대가 있고, 멀리 체성 북벽과 객사 터에 세운 천막이 보인다. 앞 축대는 아래운동장과 동서 횡축도로와의 경계에, 뒷 축대는 아래운동장과 윗운동장의 경계에 설치된 것이다. 건물의 외형만 보면 정

면 5칸, 측면 2칸이다. 외벽은 비늘판벽 위에 사각형의 유리창으로 꾸미고, 정면 중앙에는 일본식의 카라하후(唐破風)를 달아냈다.¹⁴⁾ 교사로 전용하면서 변개한 것이다. 또 좌측에는 기와집이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연혁지>, <학교추정도>, <지적원도> 등과 대조하면 아래운동장에 있던 3, 4학년용의 동헌과 1, 2학년용의 부속행랑채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 일제강점기 3, 4 학년용 교사 (다대백년사)

사진 2는 1934년의 4년제 다대포실용학교 윗운동장에서 열린 대운동회 때의 모습이다. 객사 터에 설치한 천막과 그 너머로 체성 북벽이 보이고, 우측으로는 담장 안의 윤공단이 보인다. 객사가 없어진 후 윗운동장으로 사용될 뿐 건물은 없다.



사진 2. 1934년 윗운동장에서 열린 가을운동회 모습(다대백년사)

사진 3은 1937년에 윗운동장에 들어선 새 교사의 완공식 모습이다.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고, 새 교사 뒤로 체성 북벽이 보인다. 건물 앞의 석축은 옛 객사의 기반으로 그 위에 비늘판벽과 유리창으로 외벽을 꾸미고, 화양절충식 지붕을 올렸다. 이듬해 6년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5, 6학년을 수용할 교사를 지은 것으로, <1930년경 학교추정도>에서도 확인된다.



사진 3. 1937년 객사 터에 지은 새 교사(다대백년사)

사진 4는 6년제 다대포국민학교 때인 1960년경에 학교를 45도 각도로 찍은 것이다. 객사가 있던 윗운동장에 1937년에 지은 새 교사를 증축한 장방형의 본관이 보이

12) 부산광역시, <다대진성 종합정비계획>(2017)에서 참고된다.

13) 윤공단은 임진왜란 때 왜군과의 전투 때 순절한 첨사 윤흥신(尹興信) 장군을 모신 제단이다.

14) 일본식의 카라하후(からはふ, 唐破風)식의 입구는 그 무렵 교사나 식민통치시설 등으로 전용된 관아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고, 아래운동장에는 축대 앞으로 팔작지붕의 동헌 측면이 보인다. 본관은 그 무렵 학교 규모가 커지면서 5, 6학년용 교사를 겸하도록 증축한 것이다.



사진 4. 1960년경의 학교 전경(다대백년사)



사진 5. 1960년경바다에서 찍은 학교 전경(다대백년사)

사진 5는 바다에서 학교 정면을 향해 찍은 사진이다. 사진 4와 같이 객사가 있던 윗운동장에 장방형의 본관(5, 6학년용 교사 겸용)이 보인다. 아래운동장 좌측에 1, 2학년용 부속건물이 보이지 않지만 3, 4학년용 교사로 사용되던 팔작집, 즉 동헌은 그대로 남아 있다.

4. 물운대로 이전·복원 후의 상황

4.1. 운동장 정지공사와 동헌의 철거 이전

1960년대부터 취학 아동의 급속한 증가로 다대포국민학교는 본관 증축에 이어 새 교사를 짓는 한편 1970년에는 상, 하로 분리된 운동장을 하나로 합치는 정지공사를 하게 된다. 이때 퇴락한 동헌도 철거하게 되는데, 『다대백년사』(2004)에는

제20대 ○○○ 교장 재임 시 1970년에 문화재전문위원이 객사를 수리하러 방문했는데 ○ 교장이 ○○○ 교육감에게 연락하여 수리를 중단시키고 3월 20일 첨사진객사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6월 15일 다대포객사를 철거하여 물운대로 이관했다…(중략)…당시 2단으로 되어 있던 운동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주변의 개인소유의 땅을 사들여야 했다.¹⁵⁾

15) 다대초등학교총동창회, 『다대백년사』, 2004, 336쪽

라 하여 구 공해, 즉 동헌을 수리만 하고자 했으나 2단으로 분리된 운동장의 확장공사를 위해 물운대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관계자나 조사차 방문한 문화재위원이 이 건물을 ‘첨사진객사’나 ‘다대포객사’로 지칭하고 있다. 문화재 사업 초기인 데다 처음 구성된 부산직할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이 이유인 듯하다. 실제로 당시 이 일에 관여한 제1대 부산직할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1명이 배정된 고건축 분야는 구조공학 전공자가 많고 있었다.¹⁶⁾ 고건축 전문가가 드물었던 시절에 비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유일하게 남아 있던 동헌을 객사로 오인해서 ‘다대포 객사’라는 문화재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사진 6. 물운대로 이전 복원된 현 건물

4.2. 현존 건물의 건축형식

『다대백년사』(2004)에는 1970년 3월 20일 이 건물의 해체를 시작해서 6월 15일 물운대로 옮겼다고 했다. 50여년 전 일이선지 공식문서는 없다. 그 대신 서울의 태창건축설계사무소가 작성한 몇 장의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데, 사진 8이 그 중의 1장이다. 이를 보면 정면 5칸, 측면 2칸에 지름 390mm의 평주 14본 중 9본은 신재로 교체하고, 지름 300mm의 퇴주 4본은 전부 교체했다. 정면 주칸은 2,500×2,500×2,500×2,500×3,100mm로 우측 첫칸만 600mm 더 크고, 측면은 3,150×3,150mm로 같다. 사진 1의 일제강점기 3, 4학년용 교사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기둥배열은 가운데 정청이 좌, 우 익현에 비해 더 넓은 일반적인 객사에서는 보기 어렵다. 또 이 건물의 해설서에 언급한 것처럼 객사의 좌, 우 익현이 없어졌다 해도 정청의 규모가 정면 5칸으로 큰 경우는 거의 없다.¹⁷⁾ 원래부터 정면 5칸, 측면 2칸의 완형 건물로 지

16) <부산직할시 제1대(1972~1975) 문화재위원회 명단>, 부산직할시 문화재위원회는 1972년에 제1대가 처음 구성되었다. 위원장 부시장을 비롯해서 고대사, 고고학, 토목, 고건축, 고미술, 서예, 한국사, 민속학, 식물학, 지질학 등 1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고건축 분야의 ○○○은 구조공학 전공자이다. 또 부산직할시 <문화재 복원 보수 설계용역>(1980. 2. 29)에는 1980년의 보수공사 때도 제1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3명과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전문위원 ○○○ 등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으나 건물의 실체가 검토되지 않은 채 ‘다대포 객사’로 부르고 있다.

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1970년 물운대로 옮길 때 내, 외부 벽체와 창호를 모두 없애고 기둥 위에 지붕만 올리는 식으로 복원한 탓에 마치 누대(樓臺)처럼 보인다. 학교 교사로 사용할 때 설치한 비늘판벽과 유리창을 없애고 벽체는 비워둔 때문이다. 원형 고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듯하나 대단히 부적절하다. 단청도 새로 하고 객사 명칭인 회원관(懷遠館)으로 편역한 것도 잘못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누구든 현존 건물이 객사이며, 누대처럼 복원한 모습이 객사의 건축형식으로 여길 것이다.

4.3. 인근 영읍진 객사들과의 건축형식 비교

조선시대 객사는 관아건물 중에서 위상이 가장 높아서 규모가 컸고, 건축형식도 달랐다. 긴 一자형으로 가운데 정청을 두고 그 좌, 우에 각기 익헌을 두는 식이었다. 국왕의 전패를 모신 정청은 동, 서 익헌에 비해 더 높고 면적도 넓으며 주고와 주칸의 치수가 더 컸다.¹⁷⁾ 지붕도 정청은 더 높은 맞배지붕을, 동, 서 익헌은 낮은 외팔작지붕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대진의 주변 영읍진의 객사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표 2에서 보듯이 동래부, 부산진, 기장현의 객사는 없어졌지만 사진에서 보는 모습은 고회화에 묘사된 것과 같다. 위상이 더 높은 고을이어서 규모도 더 컸지만¹⁹⁾ 가운데 정청은 더 크고 높은 몸체에 맞배지붕을, 좌, 우 익헌은 더 낮고 작은 몸체에 외팔작지붕을 올리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경상우수영 산하

표 2. 인근 영읍진 객사의 건축형식

동래부객사	기장현객사	부산진객사
		
		

17) 예외적으로 큰 고을이었던 전라도 나주목의 객사는 정청을 5×4칸의 팔작집으로, 좌, 우 익헌을 각기 6×4칸의 외팔작집으로 구성하고, 작은 경우 해미객사처럼 7×2칸의 팔작집에 가운데 3칸을 정청으로, 좌, 우 2칸씩에 익헌을 두기도 한다.

1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198쪽

19) 동래부객사는 <성역급각공해중수기>(1872)에 52칸, 기장현객사는 『기장군읍지』(1903)에 정전 3칸·동익랑 5칸, 서익랑 3칸, 그리고 부산진객사는 <부산진지>(1895)에 36칸으로 기록된다.

의 만호주재 수군진의 객사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대진 객사는 사진자료가 없지만 고회화 등에는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고 문헌에는 15칸이라 했다. 가운데 3칸은 정청으로, 좌, 우 2칸씩은 동, 서 익헌으로 꾸몄을 것이다. 이른바 ‘다대포 객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집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객사 건축형식과 판이하다.

4.4. 정보매체에 의한 오류의 확대 재생산

이 건물의 문화재 지정 관련문서는 남아 있지 않지만 1993년 부산직할시가 펴낸 『부산의 문화재』에 그 해설이 실려 있다. ‘다대포 객사’라는 이름 하에 조선시대 객사의 교과서적인 설명과 다대진의 역사를 적은 후 현재 자리에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했다²⁰⁾는 내용이다. 그런데 1998년의 개정판부터는 잘못된 설명이 더해진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홀처마, 팔작지붕 건물로서 벽체가 없이 기둥만 남아 마치 누각 건물처럼 보인다. 객사 건물에는 가운데 정당과 좌우에 날개처럼 익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 현재 남아 있는 정당 외에 좌우에 익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¹⁾

고 하여 현존 건물이 객사의 정당에 해당하며, 좌, 우 익헌은 없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원래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서 오류가 더해진다. 물론 이후의 개정판이나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모두 이를 베껴 적으면서 다른 오류를 만든다. 예컨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는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이 객사는 일반적으로 중앙의 정당과 좌우 익실로 이루어진 다른 객사들과 달리 정당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중략)…옛부터 다대포는 왜구를 막기 위한 군사요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임진왜란 이후 부산진과 함께 다른 진보다 더욱 중요시되었다. 다대포 객사는 이 지역에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조선시대 객사건축물이다.

라 했다. 현존 건물의 형태를 다대진의 군사적 중요성과 연관 짓거나 지역 유일의 객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산역사문화대전>의 ‘조선 후기 다대진의 군사적 위상을 확인시켜 주는 관아 건축물’²²⁾이란 서술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논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제부터 틀렸다. 한번 객사라는 명칭을 잘못 붙인 뒤로 건축형식 등에 대한 또 다른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20) 부산직할시, 『부산의 문화재』, 1993, 122쪽

21) 부산광역시, 『부산의 문화재』, 1998, 65쪽

22) <부산역사문화대전 부산항도문화백과>

5. 맺는말

1972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다대포 객사’의 실체는 다대진성 내에 함께 있던 동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조선후기의 문헌과 고회화, 학교 개설 이래의 기록, 사진자료, 공사도면 등에서 두 건물의 위치, 칸수, 건축형식, 소멸시기 및 교사전용 상황의 검토로 충분히 입증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사는 정면 7칸으로 다대진 관아 일곽의 축대 위 상단에 위치한 반면, 동헌은 정면 5칸으로 하단에 위치했다. 이는 고지도와 고회화, 지적원도, 학교추정도 및 사진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된다. 하단에 있던 정면 5칸의 현존 건물이 객사가 아닌 이유이다.

둘째, 객사는 1910년대 무렵 이미 철거되어 그 터가 윗운동장으로 사용된 반면, 동헌은 부속행랑채와 함께 남아서 1904년 개교한 다대포사립실용학교의 3, 4학년용 교사로 사용되다가 1970년 운동장 정지공사 때까지 아래운동장에 존속했다. 물론대로 옮겨진 현존 건물이 객사가 아니라 동헌인 이유이다.

셋째, 객사는 이른 시기에 철거되어 사진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고지도와 고회화에 가운데 3칸 정당은 높은 맞배지붕으로, 좌, 우 2칸씩의 동·서 익헌은 다소 낮은 외팔작지붕을 올린 조선시대 객사의 일반적인 건축형식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건축형식은 동래부를 비롯한 인근 영읍진의 객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현존 건물을 좌, 우 익헌이 없어진 상태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오류이다. 무엇보다 칸수가 맞지 않고 정면 5칸의 정청 규모도 수군진의 위계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물론대에 옮겨져 있는 이른바 ‘다대포 객사’는 동헌을 객사로 오인해서 명칭을 잘못 부여한 것이다. 이걸 당시 70년 전에 없어진 객사를 알 리 없던 학교관계자들과 전문성이 부족한 부산직할시 문화재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문제는 단순히 명칭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든 정보매체들이 이를 반복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오류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다대포 객사’를 ‘다대진 동헌’으로 변경하고, 고증을 거쳐 원형대로 복원하는 한편 실체에 부합하는 해설로 고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국에 걸쳐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을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도 동래부동헌 외대문 현판에 적힌 ‘독진대야문(獨鎭大衙門)’이란 관아 명칭을 여닫는 문으로 오인해서 문화재 명칭으로 사용했고, 존재하지 않은 ‘부산진

지성(釜山鎭支城)’이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최근 ‘동래부 동헌 외대문’과 ‘부산진성’으로 각기 바로 잡기도 했다. 잘못된 문화재 명칭에서 시작된 오류의 확대 재생산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낳고 나아가서는 역사왜곡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 연구가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와 수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태종실록』
2. 『성종실록』
3. 『중종실록』
4. 『고종실록』
5. 『영남진지』 <다대진지>(1895)
6. 『영남진지』 <부산진지>(1895)
7. 이시눌, <임진전란도>(1834)
8. 변박, <동래부순절도>(1760)
9. <1872년 군현지도>
10. <다대진각방중기책>(1893)
11. <광무삼년월일경상남도동래부다대진목공해간수집물공산송목추주수급장내동리호수성책>(1899)
12. 다대포초등학교총동창회, 『다대백년사』, 2004
13. 부산직할시, 『부산의 문화재』, 1977
14.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1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16. <부산역사문화대전 누리집>

접수(2020. 02. 20)

수정(1차:2020. 04. 01)

게재확정(2020. 04. 13)